

코스피	2504.67 (+1.61)	코스닥	694.39 (+2.39)
금리 (10년)	2.638 (-0.103)	환율 (원/달러)	1396.75 (-0.25)

기준금리 연 3%로 0.25%p ↓ 내년 성장률 전망 1.9%로 하향

한은, 금융위기 후 처음 2연속 내리 성장둔화 우려 속 소비·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수출 부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수출 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p) 하향했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

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환율 부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그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 붙은 상태다.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가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한 0.1%를 기록했다. 저성장 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0.2%p 낮췄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수출의 경우 주력업종의 경쟁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내려앉을 것 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낮은 1.9%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2.5%보다 낮은 2.3%로,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1%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2024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심사에서 이정희 메트로신문 대기자(왼쪽부터), 안상철 조경기술사 '아텍' 대표,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교수,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이 심사평을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휴'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등 7곳 선정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등이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엔휴(休&休)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아파트의 미학 휴엔휴'에 소개된 30여곳의 아파트 가운데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이 정해졌다.

<관련기사 12·13면>

▲조경혁신대상 '복수원 자이렉스비아(GS건설)' ▲커뮤니티대상 '제일풍경채옥정(제일건설)' ▲테마조경대상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DL이앤씨)' ▲스마트환경대상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럴(대우건설)' ▲미래가치대상 '쌍용더플래티넘 장항(쌍용건설)' ▲친환경단지대상 '더샵돈촌포레(포스코이앤씨)' ▲브랜드혁신대상 'SK

뷰학익(SK에코플랜트)'이 각각 주인공으로 뽑혔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수상작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조경기술사 '아텍' 대표, 이정희 메트로신문 상무이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서구원 심사위원장은 “최근 입주한 단지를 중심으로 산책로에 큰 나무를 조성해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텃밭을 만들어 가꾸는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조경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iw13@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최종 승인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초읽기 진에어 등 LCC 통합 급물살 탈 듯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초대형 항공사인 '메가 캐리어' 탄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11월 2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북 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

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예

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서 4년간 이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를 맞았다.

항공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의 통합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30년 넘게 다른 노선을 걸어온 조직이 결합한 만큼 조직간 갈등요소나 마일리지 통합 등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여의도 12배 면적' 산지 규제 풀다

韓 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농촌·산촌, 인구 유입·투자 유도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또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

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 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BS1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새만금 특혜 의혹'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진 뉴시스
▲ 김문수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 적극 도울 것”

▲ 최상목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 통과 유감…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 '청문회도 동행명령장 발부' 증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의 몰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실 “출산율 반등 가시화… 일·가정 양립정책 등 영향” /사진 뉴시스